

## 2016 추석 가정예배

### 추석 가정 예배의 취지

해마다 추석이 되면,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거나, 부모 또는 조상의 묘소를 찾아, 제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. 신앙인들도 선인들의 묘소를 찾고 돌볼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보다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, 또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선인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.

1. 개 식 사 ..... 인 도 자  
이 시간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 
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.
2. 신앙고백 ..... 사도신경 ..... 다 함 께  
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.
3. 찬 송 ..... 588(통 307) ..... 다 함 께
4. 기 도 ..... 인 도 자  
사랑의 하나님 아버지!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. 지난 세월들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,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 귀한 시간들을 바라보게 됩니다. 그로 인하여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,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.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족의 믿음이 더욱 더 깊어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 드리는 참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5. 성경봉독 ..... 시편 128:1~4 ..... 인 도 자  
(설교 없이 인도자가 성경본문만 봉독한다. 가족들이 함께 읽어도 좋다.)  
1.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.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.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.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.
6. 묵 상 ..... 다 함 께  
(읽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문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고, 하나님께서 조상과 가문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, 조상의 훌륭한 믿음과 뜻과 행적을 상기하고 마음에 새깁니다.)
7. 함께 드리는 기도 ..... 다 함 께  
우리를 친히 창조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! 올 한해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, 각자 흩어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다가 귀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. 그로 인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며, 그분을 인정하고 높일 뿐 아니라 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8. 찬 송 ..... 559(통 305) ..... 다 함 께
9. 주 기 도 ..... 다 함 께  
다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.

##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

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려 염려했더니  
어느 날 갑자기 가을이 왔습니다.  
그렇게 뜨거웠던 바람이 하룻밤 사이에 선선해졌습니다.  
소망의 성도들에게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 
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 
여러 사람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.  
가족들 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,  
나아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감사의 열매를 나누며  
함께 즐거워했습니다(신16:14).

추석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둘러앉으시거든  
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.  
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 일이고,  
친지들과 반갑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.

고향교회에 들르는 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 
고향교회에 감사헌금도 하시고, 고향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가정에  
선물도 전하시면 더 멋진 것입니다.

우리 소망의 성도들 모두가 감사를 전하고 기쁨을 나눔으로써  
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기를  
간구합니다.

즐겁고 따뜻한 한가위 보내십시오.

2016년 9월 한가위에  
담임목사 김지철 드림